

광주시 '숙련 기술인' 전국기능경기대회 열린다

내년 9월 20~26일 김대중컨벤션센터 등 6개 경기장서 개최 드론제어·자동차정비 등 50개직종 1만8000여 선수단 참가

광주시가 숙련기술인의 대축제 '전국기능경기대회' 유치를 성공했다. 광주시는 "내년 9월 열리는 '제60회 전국기능경기대회'를 유치했다"고 26일 밝혔다.

전국기능경기대회는 우수 숙련기술자 발굴과 사기진작을 목표로 1966년부터 매년 개최되는 국내 최대 규모의 기술인 축제다. 광주시는 1980년, 1992년, 2009년에 이어 16년 만에 네 번째 대회를 개최한다.

'제60회 전국기능경기대회'는 2025년 9월 20일부터 26일까지 7일 간 김대중컨벤션센터, 광주공고, 전자공고, 전남공고, 광주자연과학고 등 6개 경기장에서 열린다. 광주시, 고용노동부, 광주시교육청이 주최하고 한국산업인력공단과 광주시기능경기위원회가 주관한다.

대회에는 각 시·도 지방기능경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참가자격을 획득한 선수들이 참가한다. 전국 17개 시·도 선수, 지도교사, 대회 관계자, 자원봉사자 등 1만 8000여명이 참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내년 대회에서는 산업용 드론제어, 산업용 로봇, 메카트로닉스, 모바일로봇, 클라우드컴퓨팅, 게임개발, 웹디자인·개발, 사이버보안, 자동차정비, 용접, 헤어디자인, 요리 등 총 50개 직종에서 국내 최고 기술인이 실력을 겨룬다.

3위 이내 입상자에게는 상장, 메달과 함께 최대 1000만원의 상금이 수여된다. 직종별 입상자에게는 해당 분야의 산업기사 실기시험 면제 혜택 등이 주어진다. 또 국제기능올림픽대회 국가대표선발전 출전 자격 등 여러 혜택을 받게 된다.

시는 원활한 대회 운영을 위해 고용노동부, 광주시교육청, 한국산업인력공단 광주지역본부 등과 함께 공동 준비에 나선다.

광주시는 내년 대회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기능인재 육성, 숙련기술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 등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대회 기간 동안 선수단과 관람객 방문으로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지역 내 직업계고등학교와 기술교육기관의 기능인재 육성이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시는 특히 총장축제, 광주디자인비엔날레, 세계양궁선수권대회 등 다양한 행사와 연계해 추진함으로써 대회 성공 개최를 통한 '광주 도시브랜드 가치'도 높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상갑 광주시 문화경제부시장은 "전국기능경기대회는 단순한 기술 경연의 장을 넘어 기술인재들이 꿈을 키우고 도전하는 기회의 장"이라며 "이번 대회의 성공 개최를 위해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ACC~전남대병원 도로 확장 26일 광주 동구 광산길 ACC~전남대병원 구간에 도로 확장 공사가 진행 중이다. 2025년 3월 완공 예정인 도로는 기존의 12m 폭 2차로 일방통행로를 25m 폭의 왕복 5차로로 조성된다. /김진수 기자 jeans@

광주관광공사 '지역사회공헌 인정기업' 선정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복지협의회 주관 인정제도 Level 4 승인

광주관광공사는 26일 "보건복지부와 한국사회복지협의회가 공동 주관하는 '지역사회공헌 인정제' 인정기관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지역사회공헌 인정제는 비영리단체와 협력해 꾸준한 지역사회 공헌활동을 펼친 기업과 기관을 발굴하고 그 공로를 지역사회가 인정해 주는 제도다. 전문 심사위원들로 구성된 평가단이 환경경영·사회공헌 프로그램·투명경영 등 8개 항목 총 24

개의 세부지표를 심사한다.

광주관광공사는 올해 설립 이래 처음으로 지역사회공헌 인정제 인정기관에 도전해 Level4 인정을 획득하는 성과를 냈다.

광주관광공사는 그동안 ESG경영체계 내재화와 지역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목표로 걸음기부챌린지와 공사 자원을 활용한 공헌사업, 지역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이해관계자와의 협력, 농촌

일손 돕기, 지역사회 상생발전을 위한 지역MICE 육성 협의체 운영 등 다양한 사회적 책임경영 활동을 적극 실천해왔다.

광주관광공사 김진장 사장은 "지역에서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는 사회공헌활동에 대한 지속적인 고민을 바탕으로 기관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을 발굴·실천하고 있다"면서 "이번 인정 획득을 계기로 지역과 함께하는 사회적가치 창출 경영을 통해 가장 높은 등급인 레벨(Level) 5를 획득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

광주시 "캐릭터 '빛돌이·빛나영' 이모티콘으로 만나세요"



27일 14시 선착순 5만명 배포 연말연시 안부 인사 등 16종

광주시가 연말연시를 맞아 캐릭터 '빛돌이'를 활용한 이모티콘 이벤트를 진행한다.

선착순 5만명을 대상으로 27일 오후 2시부터 광주시 공식 카카오톡채널을 추가하면 귀여운 이미지로 돌아온 캐릭터 '빛돌이'와 그의 여자친구 '빛나영'을 활용한 이모티콘 16종을 무료 배포한다.

'빛돌이' 이모티콘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화이팅' 등 재치있는 표현의 움직이는 이모티콘 16종이다. 카카오톡에서 연말연시 안부와 인사를 나눌 때 다양하게 활용 가능하다.

이모티콘은 카카오톡 친구 메뉴에서 '광주광역시'를 검색해 채널 추가하면 받을 수 있고, 기존 친

구는 친구 취소 후 채널을 추가해 다시 신청하면 된다. 이모티콘은 다운로드 후 30일 간 사용할 수 있다.

광주시는 이모티콘 이벤트 홍보를 위해 2025년 1월10일까지 광주시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채널에서 '빛돌이가 준비한 이모티콘&키링 받고 빛나는 새해 보내세요'라는 이벤트로 빛돌이 이모티콘을 사용한 후 이벤트에 응모하면 KIA 타이거즈·광주FC 유니폼을 입은 빛돌이 인형 키링을 경품으로 제공한다.

박광석 대변인은 "올 한 해 광주는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 KIA 타이거즈 우승, 광주FC의 아시아챔피언스리그 출전 등 시민들에게 힘이 되고 기쁨이 되는 일이 많았다"며 "시민들이 빛돌이 이모티콘을 통해 서로의 안부를 챙기는 등 훈훈한 연말연시를 보내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장성·고흥, 스마트농업 육성지구 공모 선정

정부지원 연계형·지구지정형

농림축산식품부의 '2025년 스마트농업 육성지구 조성' 공모사업에 정부지원 연계형으로 장성군, 지구지정형으로 전국에서 유일하게 고흥군이 각각 사업대상자로 선정됐다.

장성군은 앞으로 레몬 등 아열대 농업을 육성하는 신규 임대형 스마트팜 단지(5ha)를 장성 삼계면 월연리 일원에 조성하는데 200억원을 지원받아 지자체 자체 조성단지(5ha)와 연계해 클러스터가 조성될 예정이다. 고흥군은 정부 사업비 지원 없이 기존 스마트팜 혁신밸리(33.3ha)에 스마트 원예단지와 대규모 스마트팜 창업단지(30.3ha) 조성 등 사업을 확장하는 데 관련 인허가 의제 시설 건립 간소화, 공유재산법 특례(수의계약·20년 장기임대), 대부료 감면(50%) 등의 혜

택을 받는다. 이번 공모는 지난 7월 시행된 '스마트농업육성법'에 근거해 처음 이뤄진 사업으로, 스마트농업 확산과 청년 농업인 육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전국 4곳이 선정됐다.

전남도는 2025년 첫 시행하는 이 사업의 공모가 시작되기 4개월 전부터 시군을 대상으로 사전에 자체 설명회를 개최하고, 정부 추천 대상인 장성군 사업계획에 대해 자체 전문가 자문 회의(2회)를 운영, 이같은 결실을 봤다.

이 사업을 통해 스마트팜 창업에 도전하는 청년에게 저렴한 임대료로 장기 임대형 스마트팜을 제공, 독립창업 기반을 마련하도록 지원한다. 기본 5년간 임대 후 평가 등을 거쳐 최대 10년 연장이 가능하다. 청년이 안정적으로 농업에 정착하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점을 뒀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광주문화신탁

광주문화신탁 이 평생 어부바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금융 다채로운 금융 함께하는 금융

출자금 비과세 한도 상향
개인당 **2천만원** 까지 완전 비과세

자산규모
1조 5천억원

창립 이후
30년 연속 흑자경영

복지장학재단 운영

당기순이익의
9% 이상 지역사회 환원

광주문화신탁
대표번호 1644-7990

· 본 점
· 여신사업부
· 양산지점
· 운암지점
· 매곡지점
· 첨단지점
· 동광주지점
· 문흥지점
· 동림지점
· 각화지점